우즈, 대회 출전 안 해도 2024년까지 PGA투어 자격

PGA투어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선수 인기도 보상 제도' 의 윤곽이 드러났다.

15일 'SBS' 에 따르면 PGA투어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선수 인기도 보상 제도' 는 선수의 인기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자금으로 출범하는 슈퍼골프리그(SGL)에 인기 선수를 뺏기지 않으려는 PGA투어의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마련됐다.

지난해 3월 PGA투어 선수위원회 비준을 받은 이 제도에 따라 PGA투어는 4천만 달러의 돈을 선수 인기도 10위 선수에게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위 800만 달러, 2위 600만 달러, 3~6위 350만 달러, 7~10위 300만 달러를 지급한다. 인기도에서 10위만 해도 메이저대회 우승 상금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된다.

인기도는 선수 이름 구글 검색량이, 언론 보도량, 소셜 미디어 팔로잉 수, TV 중계방송 노출량, 홍보 마케팅 전문 기업이 활용하는 Q 스코어 점수등을 바탕으로 정한다.

▲ 타이거 우즈, 사진=shutterstock

최근 5년 사이 1년에 5개 대회 이상 출전한 선수는 보너스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타이거 우즈는 앞으로 한 번도 PGA투어 대회에 나오지 않아도 2024년까지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된다. 우즈가 대회에 안 나온다고 해도 인기도에서 10위 이내에 들면 최하 300만 달러를 받는다.

PGA투어 '선수 인기도 보상 제도' 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측정에 들어간다.

"최지만, 성품은 명예의 전당감"

미국 언론이 최지만(30, 탬파베이 레이스)이 한국에서 펼친 선행을 주목했다.

14일 '스포티비뉴스' 에 따르면 미국 스포츠 네트워크 SB네이션의 탬파베이 구단 페이지 '디레이베이' 는 전날 최지만의 SNS에 올라온 연탄 봉사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명예의 전당에 오를 선수는 아닐지 몰라도, 성품은 명예의 전당감이다." 라고 전했다.

최지만은 지난 11일 인천 동구 송림동을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최지만이 연탄 2500장을 구매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배달했다.

SNS에는 최지만이 자원봉사자들과 연탄 나눔을 실천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함께 소감이 적혀 있었다. 최지만은 영어로 "한국의 겨울은 춥다. 미국으로 치면 위스콘신주의 겨울 날씨 같다.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탄 2500장을 기부했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추운 날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마음을 표현했다.

최지만은 올 시즌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인 10월 중순쯤에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 어린이 병원을 찾아 3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최지만은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뿐이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늘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현역 시절은 물론, 은퇴 후에도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고 실천하겠다." 고 전했다.

손흥민 이란전 선제골, 한국 축구 팬이 뽑은 '올해의 골'

▲ 손흥민이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KFA 홈페이지

한국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지옥의 원정' 이란전에서 넣은 선제골이 한국 축구 팬들이 뽑은 2021년 '올해의 골' 의 영광을 차지했다.

15일 'SBS' 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팬 투표 결과 손흥민의 이란전 골이 전체 3,547표 중 가장 많은 1,026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10월 12일 '원정팀의 무덤' 으로 불리는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4차전에서 후반 3분 선제골을 넣었다. 황인범이 수비를 제치고 내준 공을 이재성이 날카로운 침투 패스로 연결하자 손흥민이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정확한 오른발 슛을 날려 이란 골문을 열었다. 손흥민의 골이 축구협회가 매해 팬투표로 뽑는 '올해의 골' 로 선정된 것은 2015년 아시안컵 결승전, 2016년 리우올림픽 독일전, 2018년 러시아월드컵 독일전 골에 이어 통산 4번째다.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것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서 황의조가 넣은 절묘한 힐킥 골(970표)이었다. 이어 이동경의 도쿄올림픽 멕시코전 중거리 골(757표), 황인범의 월드컵 최종예선 시리아전 골(336표)이 3위~4위에 올랐다.

'올해의 경기' 로는 지난달 11일 고양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와 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이 뽑혔다. 이 경기는 황희찬의 페널티킥 골로 1대 0으로 승리했지만 손흥민과 조규성의 슛이 잇따라 골대를 때리는 등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져 1,469명의 표를 받았다.